

KOSI 중소기업 포커스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설립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이 주는 교훈

책임작성 | 강재원 연구위원(02-707-9853, jwkang@kosi.re.kr)

※ KOS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1. 서론
2. 실리콘밸리은행의 특성 및 파산 전 상황
3.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의 원인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요약

-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도입을 검토 중이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
 -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의 높은 부실화 가능성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예측
- 스타트업·벤처캐피털 투자 특화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SVB)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Bank Run)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결국 파산
 - 실리콘밸리은행은 2022년 말 자산 기준 16위의 대형은행으로 파산 규모는 미 역사상 두 번째임
 - 실리콘밸리은행은 파산 직전 실버게이트 캐피털이 청산을 시작하였고,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시그니처은행 역시 파산하며 금융권 불안을 야기
- 실리콘밸리은행은 미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기에, 기술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실리콘밸리은행은 2022년 기준 미국 벤처 지원(venture-backed) 기술 및 생명과학 기업의 약 절반에 자금을 공급하였으며, 기업공개(IPO) 자금의 44%를 부담

■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은 (1) 건전한 내부 위험관리 시스템 부재, (2) 중소형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규제 당국의 감독 실패, (3) 예기치 못한 불운의 동시 발생으로 인해 발생

-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은 자산 유동성위험이 자금조달 유동성위험으로 전이되고, 결국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져 발생
- 2018년 미 규제당국의 자산 기준 감독 및 자본 적정성 심사기준 상향에 따라 실리콘밸리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실리콘밸리은행의 손실 발표 직후 같은 날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실버게이트의 청산이 뉴스가 연이어 나오며 시장에 공포가 확산

■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험자본의 순환을 돕는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이 필요

- 벤처투자의 선순환을 위해 벤처캐피털과 스타트업에 지속적인 자금공급이 필요하며,
- 2022년 6조 7,640억 원의 벤처투자 중 대부분이 서울(55%)과 경기(17%)에 집중되어 지방의 벤처투자 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실(중소벤처기업부, 2023)
- 따라서 모험자본(벤처캐피털/사모펀드)에 신규 자금을 제공하고, 기존 투자 자금을 용자로 대체해주는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이 필요

■ 본 고는 정부의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도입 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사항 검토를 제안

-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실시
- 합리적인 스타트업 및 기술혁신기업 신용평가를 위해 관련 노하우를 지닌 기관과 협업 연계
-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을 지방에 설립할 경우 일부 특정 지역 대상이 아닌 상호보완이 가능한 지역들을 거점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
- 초기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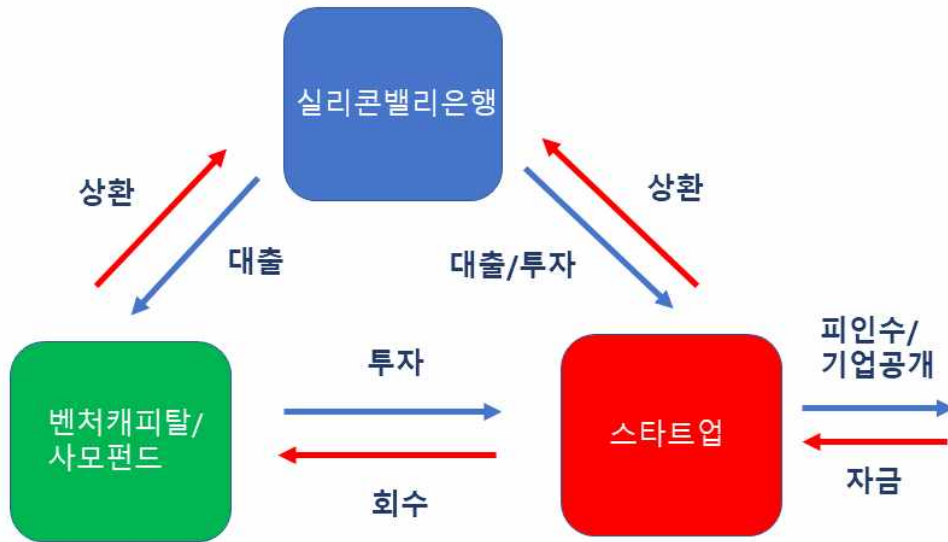
1. 서론

- 최근 정부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 소규모 특화 은행인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도입을 검토 중(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3.3.3; 2023.3.30)
 -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해 스몰 라이선스* 및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을 검토
 - * 은행이 수행 중인 업무 범위를 세분화하여 분야별로 인허가
 - 소규모 특화은행으로 지급결제 전문은행과 더불어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이 논의됨
- 한편 스타트업·벤처캐피탈 투자 특화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SVB)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Bank Run)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결국 파산
 - 실리콘밸리은행은 2022년 말 자산 기준 16위*(2,090억 불)의 대형은행으로 파산 규모*는 미 역사상 두 번째임(Federal Reserve; Santilli, P. & Benedict, J, 2023)
-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대두(강우석, 2023; 김남준, 2023)
 - 실리콘밸리은행처럼 자산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은 특화은행의 경우 리스크 관리가 어려움
 - 대전광역시 추진 중인 대전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대전광역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모델을 차용한 ‘한국벤처투자은행(가칭)’을 만들어 대덕특구에 위치한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움(조운진, 2023)
- 본 고는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

2. 실리콘밸리은행의 특성 및 파산 전 상황

- 실리콘밸리은행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벤처캐피털/사모펀드 및 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 벤처캐피털/사모펀드는 실리콘밸리은행으로부터 용자받은 자금을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 실리콘밸리은행은 유망 기술 스타트업에 대출·투자하며,
 - 스타트업은 후속 투자를 유치하거나, M&A 또는 IPO로 Exit 할 때 유입된 자금으로 대출 자금을 상환

[그림 1] 실리콘밸리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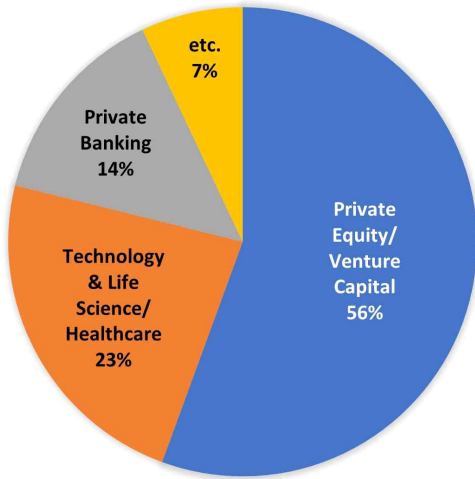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 2022년 기준 실리콘밸리은행은 미국 벤처 지원(venture-backed) 기술 및 생명 과학기업의 약 절반에 자금을 공급하였으며, 기업공개(IPO) 자금의 44%를 부담 (SVB, 2023)
 - SVB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주로 (i) 글로벌 펀드 बैं킹, (ii) 기술과 생명과학/보건의료 (Technology & Life Science/Healthcare), (iii) 맞춤형 개인금융 서비스 (Private Banking)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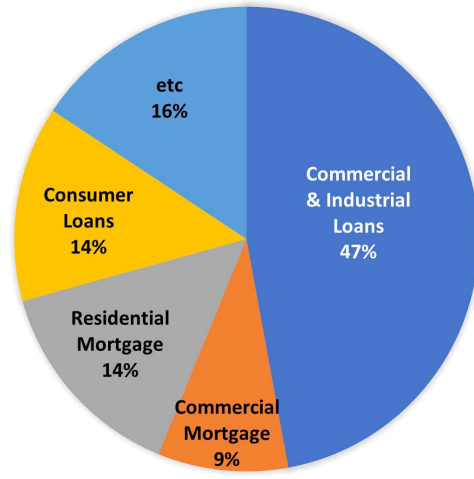
- (i) 글로벌 펀드 बैं킹: 사모펀드(Private Equity)와 벤처캐피털 (Venture Capital) 대상
 - (ii) 기술과 생명과학/보건의료: 기업 성장 주기 특성에 따라 투자자 종속* (Investor Dependent), 현금흐름 종속** (Cash Flow Dependent), 혁신 상업&산업*** (Innovation C&I) 대출로 분류
 - * 투자자 종속 대출은 초기 및 성장 스타트업 대상 직접 대출에 해당
 - ** 현금흐름 종속 대출은 스폰서 주도 기업 인수(Sponsor-led Buyout)에 사용
 - *** 혁신 상업&산업*** (Innovation C&I) 대출은 성숙한 혁신기업 대상 대출
 - (iii) 맞춤형 개인금융 서비스: 고위 경영자와 투자전문가
- 비슷한 자산 규모의 피프쓰 써드(Fifth Third)은행과 대출 포트폴리오를 비교할 때, 벤처투자 및 기술 기업 중심 대출 확인이 가능([그림2])
 - 실리콘밸리은행 대출의 상업/산업 대출 비중은 79%*로 피프쓰 써드(Fifth Third)은행의 상업/산업 대출 비중 47% 대비 32%나 높음
 - *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 56%와 기술과 생명과학/보건의료 기업 23%의 합

[그림 2] SVB와 Fifth Third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 비교

(a) SVB 대출 포트폴리오



(b) Fifth Third 대출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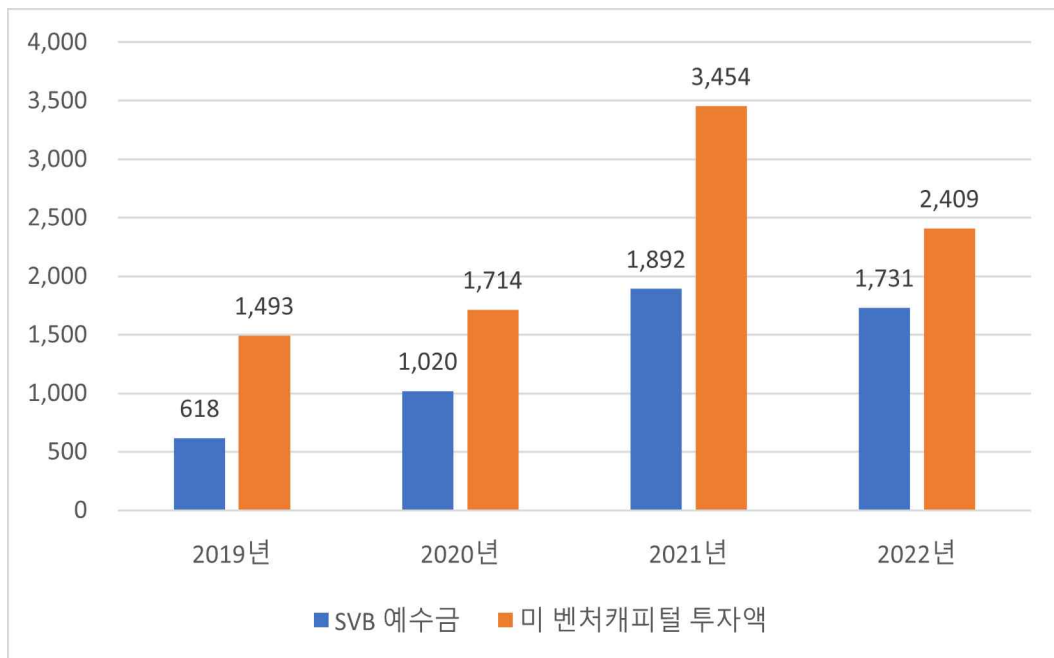
자료 : SVB and Fifth Third Bank SEC Form 10-K 참고 저자 작성

■ 실리콘밸리은행은 스타트업 투자 사모펀드·벤처캐피털과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피투자기업의 예비·운전자금을 유치

- 2019년 미 벤처투자금액이 1,493억 불에서 2021년 3,454억 불로 증가할 때 실리콘밸리은행의 예수금도 618억 불에서 1,892억 불로 증가하였으며,
- 2022년 벤처투자액이 전년 대비 1,045억 불 감소하자, 실리콘밸리은행 예수금도 161억 불 감소

[그림 3] SVB 예수금과 미 벤처캐피털 투자액 추이

(단위: 억 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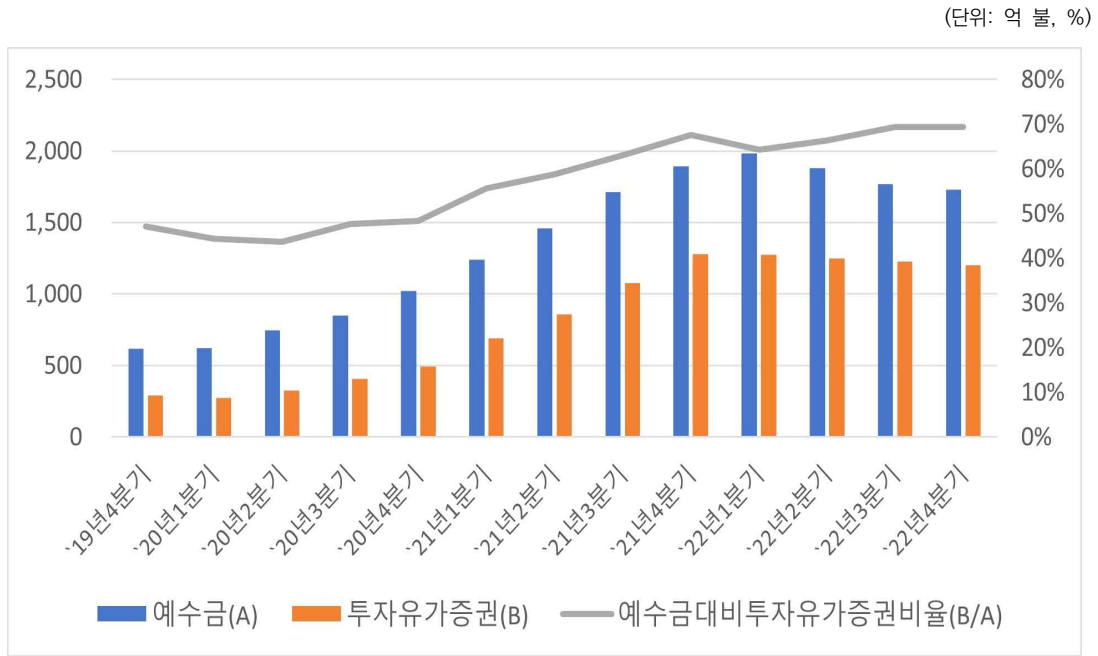


자료 : SVB SEC Form 10-K와 NVCA 2023 yearbook 참고 저자 정리

■ 실리콘밸리은행은 피투자기업의 무이자 계정 예수금을 안전 자산인 미 국채(U.S. Treasury securities) 또는 모기지담보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에 투자

- 2019년 4분기 618억 불이었던 예수금이 2022년 4분기 1,731억 불로 2.8배 증가할 때 투자유가증권은 291억 불에서 1,201억 불로 4.1배 증가
- 그 결과 2019년 4분기 50% 수준이었던 예수금 대비 투자유가증권 비율이 2022년 4분기 70%까지 증가

[그림 4] SVB 예수금과 투자유가증권 추이



자료 : SVB SEC Form 10-K 참고 저자 정리

■ 미 연준(Federal Reserve)이 2021년 1월 0.25%이었던 금리를 2022년 2월 4.75%로 급격히 인상함에 따라 보유 유가증권 가치가 크게 하락

- 장부가에 반영된 매도가능(Available-for-Sale)증권 미실현평가손실이 2021년 1억 4천 9백만 불에서 2022년 25억 3천 3백만 불로 17배 증가(<표 1>)
- 만기보유(Held-to-Maturity)증권의 경우 공정가 기준 미실현평가손실이 9억 6천 8백만 불에서 151억 5천 2백만 불로 16배 증가

<표 1> 실리콘밸리은행 보유 유가증권 가치

(단위: 백만 불, %)

연도	매도가능증권(Available-for-Sale)			만기보유증권(Held-to-Maturity)		
	원가	장부가	미실현평가손익	장부가	공정가	미실현평가손익
2021	27,370	27,221	-149	98,195	97,227	-968
2022	28,602	26,069	-2,533	91,321	76,169	-15,152

자료 : SVB SEC Form 10-K 참고 저자 정리

■ 실리콘밸리은행의 비시장성 유가증권과 기타 지분증권 투자는 2021년 7억 3천만 불 이익에서 2022년 3억 6백만 불 손실로 전환

- 공정가치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기업 지분은 2021년 7천 5백만 불 이익에서 2천 6백만 불 손실로 상장기업 지분은 2천 3백만 불에서 5천 2백만 불 손실로 전환
- 지분법에 따라 평가한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 지분은 2021년 4억 7천 4백만 불 이익에서 4천 9백만 불 손해로 전환
- 특히 한국에서 관심을 갖고, 도입을 추진 중인 중인 투자 조건부 용자(벤처 대출)에 따른 지분 가치는 2백만 불 이익에서 백만 불 손실로 전환

〈표 2〉 SVB 비시장성 유가증권과 기타 지분 증권

(단위: 백만 불)

구분		2021		2022		
		가치	순손익	가치	순손익	
공정가치법	비시장성 유가증권	벤처캐피털/사모펀드(연결)	130	71	147	-101
		벤처캐피털/사모펀드(개별)	208	75	110	-86
		비상장기업 지분 투자	164	75	183	-26
	지분증권	상장기업 지분 투자	117	23	32	-52
지분법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 투자		671	474	605	-49
	벤처 대출		5	2	5	-1
	기타 투자		294	10	276	9
합계		1,589	730	1,358	-306	

자료 : SVB SEC Form 10-K 참고 저자 정리

■ 실리콘밸리은행은 사모펀드·벤처캐피탈의 투자 알선을 통해 대출을 회수하여 대출 위험을 관리하였으나, 2022년 벤처투자 위축으로 손실 발생

- 실리콘밸리은행의 대출 손실은 2022년 6억 3천 6백만 불로 전년 대비 2억 천 2백만 불 증가
- 2022년 대출잔액 대비 손실액 비율은 0.86%로 비슷한 자산 규모의 피프쓰 씨드 은행의 1.81% 대비 양호
 - 손실률을 대출 대상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펀드(사모펀드/벤처캐피탈) 대출이 0.27%로 가장 낮았으며, 투자자 종속(스타트업) 대출이 4.07%로 가장 높았음
- 전년 대비 손실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증가

〈표 3〉 SVB 대출 손실

(단위: 백만 불, %)

구분	2021			2022		
	대출잔액(A)	손실(B)	손실 비율 (A/B)	대출잔액(A)	손실(B)	손실 비율 (A/B)
글로벌 펀드	37,958	67	0.18	41,269	110	0.27
투자자 종속	5,544	146	2.63	6,713	273	4.07
혁신기업/기업인수	8,471	118	1.39	10,575	155	1.47
맞춤형 개인금융	8,743	33	0.38	10,477	50	0.48
상업용 부동산	2,670	36	1.35	2,583	25	0.97
기타 기업	1,257	14	1.11	1,019	13	1.28
와인 및 기타	1,633	8	0.49	1,614	10	0.62
계	66,276	422	0.64	74,250	636	0.86

자료 : SVB SEC Form 10-K 참고 저자 정리

3.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의 원인

가. 건전한 내부 위험관리 시스템 부재 (안전 자산 투자의 역설)

-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은 자산 유동성위험*이 자금조달 유동성위험**으로 전이되고, 결국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져 발생

* 자산 유동성위험: 금융기관이 원하는 시기에 자산을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강종구, 2010)

** 자금조달 유동성위험: 금융기관이 자금 유출에 대응하여 필요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지 못하거나, 현금흐름을 원활히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

- 실리콘밸리은행은 고객 예수금의 상당 부분을 미 국채 (U.S. Treasury securities)와 모기지담보증권 (mortgage-backed securities)에 투자
 - 실리콘밸리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비율은 69%로 비슷한 자산 규모의 피프쓰 써드 (Fifth Third)은행의 32%에 비해 2배 이상임(〈표 4〉)

〈표 4〉 SVB와 Fifth Third 은행의 자산, 투자유가증권, 예수금 비교

(단위: 억 불, %)

은행	총 자산	투자유가증권(A)	총 예수금(B)	예수금 대비 투자유가증권(A/B)
SVB FINANCIAL GROUP	2,118	1,201	1,731	69
FIFTH THIRD BANKCORP	2,075	522	1,637	32

자료 : SVB and Fifth Third Bank SEC Form 10-K 참고 저자 정리

- 금리 인상으로 예수금 인출이 증가함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위해 가치가 하락한 보유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실제 손실 발생
 - 실리콘밸리은행의 총 예수금은 2022년 전년 대비 161억 불 감소하였으며, 요구불예금 (demand deposit)은 451억 불 감소한 반면 피프쓰 써드은행의 경우 총 예수금은 56억 불 감소하고, 요구불예금은 120억 불 감소
 - 실리콘밸리은행의 요구불예금이 2022년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예수금 대비 비중은 47%로 피프쓰 써드은행의 32% 대비 15% 더 높음

〈표 5〉 SVB와 Fifth Third 은행 예수금 비교

(단위: 억 불, %)

연도	SVB FINANCIAL GROUP			FIFTH THIRD BANKCORP		
	요구불예금	예금자비보호 예수금	총 예수금	요구불예금	예금자비보호 예수금	총 예수금
2021	1,259 (67)	1,660 (88)	1,892 (100)	651 (38)	802 (47)	1,693 (100)
2022	808 (47)	1,515 (88)	1,731 (100)	531 (32)	694 (42)	1,637 (100)

주: 괄호 안은 총 예수금 대비 % 비율

자료 : SVB and Fifth Third Bank SEC Form 10-K 참고 저자 정리

-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과 무디스의 실리콘밸리은행 신용등급 강등이 동시에 발생하자, 공포(panic)에 사로잡힌 고객들이 대규모 인출 시도
 - 실리콘밸리은행의 예금자 비보호예수금 비율은 88%로 피프쓰씨드은행의 42% 대비 무려 46%나 높음(〈표 5〉)
 - 실리콘밸리은행 상위 10 고객의 예수금은 133억 불에 달함(Ackerman & Duehren, 2023)

나. 중소형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규제 당국의 감독 실패

-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은행을 감독하는 규제 당국의 책임론 부상(Galston, 2023)
 - 2008년에 발생한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 의회는 2010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약칭 Dodd-Frank법」을 제정하며, 은행에 대한 시스템적인 규제를 강화
 - 「Dodd-Frank법」은 자산 기준 500억 불 이상의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 적정성 기준을 강화하고, 예수금을 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
 - 2018년 미 의회는 「경제 성장, 규제 완화 및 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하며, 규제 대상 은행 기준을 자산 500억 불에서 2,500억 불로 상향
 - 2019년에는 자산 규모 2,500억 불 미만의 은행에 대한 유동성 요구사항(liquidity requirement)을 완전 폐지

- 실리콘밸리은행은 규제 당국의 감독 및 자본 적정성 심사기준 상향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실리콘밸리은행 자산은 2016년 447억 불에서 2017년 512억 불로 증가하여 심사 대상에 해당했으나, 2018년 심사기준 상향으로 제외

- 미 연준은 2019년 이미 실리콘밸리은행의 위기관리시스템 문제를 인지하였으나,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는 않음(Ackerman & Michaels, 2023)
 - 미 연준은 2019년 실리콘밸리은행에 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해 주의 경고(Matter Requiring Attention)를 하고,
 - 2020년에도 실리콘밸리은행이 자산 1,000억 불 이상 대형 금융기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지

- 샌프란시스코 연준이 기후변화와 공정성 이슈에 집중하며, 관할 은행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본래의 역할에 소홀했다는 비판 대두(WSJ, 2023)
 - 2021년 Daly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기후변화 위기, 저소득/유색인종 공동체에 대한 이슈를 제기
 - 한편 실리콘밸리은행은 기후변화 관련 사업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 공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홍보

다. 예기치 못한 불운의 동시 발생(실버게이트 청산과 공포의 확산)

- 2023년 3월 8일 암호화폐 특화 은행인 실버게이트 은행이 자발적인 영업 중단과 청산 계획을 발표
 - 실버게이트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자가 달러를 거래하는 디지털플랫폼인 실버게이트 교환 네트워크(Silvergate Exchange Network)를 운영
 - 코로나 팬데믹으로 추가 공급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실버게이트 예수금이 급증

- 2019년 12억 불에 불과하던 예수금이 2020년 50억 불, 2021년 141억 불로 급증

〈표 6〉 실버게이트 캐피탈 고객 예수금

(단위: 백만 불)

구분	2019		2020		2021		2022	
	고객수	예수금	고객수	예수금	고객수	예수금	고객수	예수금
디지털자산거래소	60	527	76	2,479	94	8,288	108	7,579
기관투자자	509	432	607	1,811	894	4,220	1,069	3,043
일반고객	235	286	286	749	393	1,603	500	1,247
합계	804	1,246	969	5,039	1,381	14,111	1,677	11,869

자료 : Silvergate SEC Form 10-K, 10-Q 참고 저자 정리

- 2022년 세계 3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파산한 후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
- 실버게이트는 실리콘밸리은행 보다도 공격적으로 고객 예수금을 채권에 투자
 - 2022년 실리콘밸리은행의 예수금 대비 투자유가증권 비율이 69%인데 실버게이트의 경우 88%에 달함

〈표 7〉 실버게이트와 SVB 투자유가증권과 예수금 비교

(단위: 백만 불, %)

연도	SILVERGATE CAPITAL CORPORATION			SVB FINANCIAL GROUP		
	투자유가증권 (A)	예수금(B)	비율 (A/B)	투자유가증권 (A)	예수금(B)	비율 (A/B)
2019	931	1,815	51	29,072	61,758	47
2020	985	5,248	19	49,307	101,982	48
2021	8,693	14,291	61	127,959	189,203	68
2022	11,636	13,238	88	120,054	173,109	69

자료 : Silvergate & SVB SEC Form 10-K, 10-Q 참고 저자 정리

- 2022년 대출잔액 대비 손실 비율은 1% 미만이었으며, 전체 손실에서 암호화폐 부문 손실은 68% 수준이었음
- 실버게이트의 최종 비트코인 대출 손실은 4천 4백만 달러 밝혀짐(Benoit, 2023)

〈표 8〉 실버게이트 캐피탈 대출 포트폴리오

(단위: 천 불, %)

구분	2021			2022		
	대출잔액(A)	손실(B)	손실 비율 (A/B)	대출잔액(A)	손실(B)	손실 비율 (A/B)
부동산	379,558 (42)	4,498 (65)	1.19	110,643 (23)	733 (23)	0.66
암호화폐산업	335,862 (38)	1,566 (23)	0.47	302,160 (64)	2,173 (68)	0.72
역모기지	1,410 (0)	12 (0)	0.85	1,270 (0)	12 (0)	0.94
참고담보대출	177,115 (20)	840 (12)	0.47	58,760 (12)	258 (8)	0.44
합계	893,945 (100)	6,916 (100)	0.77	472,833 (100)	3,176 (100)	0.67

자료 : Silvergate SEC Form 10-K, 10-Q 참고 저자 정리

■ 같은 날(2023년 3월 8일) 실리콘밸리은행에 대한 부정적 기사 발표

- 실리콘밸리은행은 210억 달러의 유가증권 매각으로 인한 18억 달러의 손실 발생과 22억 5천만 달러의 자본 충당계획을 발표
- 무디스는 실리콘밸리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

■ 3월 9일 실리콘밸리은행 주가가 폭락하며, 고객에 공포가 확산되었고, 결국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발생

- 실버게이트 청산으로 민감해진 고객들이 동시에 거액의 예금인출 시도

■ 3월 12일 뉴욕 시그니처은행 역시 대규모 예금인출로 파산

- 2018년 시그니처은행은 부동산 중심의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예금을 유치하기 시작
 - 2022년 기준 디지털 자산 관련 예금은 178억 불로 총 예수금 886억 불의 20% 수준
- 2022년 기준으로 시그니처은행의 경우 예수금 대비 투자유가증권 비율 높은 실리콘밸리은행(69%), 실버게이트 캐피탈(88%)과 달리 30%로 낮은 수준

〈표 9〉 시그니처은행과 실리콘밸리은행 예수금

(단위: 백만 불, %)

연도	SVB FINANCIAL GROUP			SIGNATURE BANK		
	투자유가 증권(A)	예수금(B)	비율 (A/B)	투자유가 증권(A)	예수금(B)	비율 (A/B)
2019	29,072	61,758	47	9,477	40,383	23
2020	49,307	101,982	48	11,345	63,315	18
2021	127,959	189,203	68	22,318	106,133	21
2022	120,054	173,109	69	26,935	88,590	30

자료 : SVB & Signature bank Bank SEC Form 10-K 참고 저자 정리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한국금융연구원(2023)은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의 높은 부실화 가능성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예측
 - 중소기업대출은 경기순응적 자산으로 경기침체 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음
 - 중소기업 신용평가는 높은 난이도가 요구되는 업무로 신설 은행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움

-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험자본의 순환을 돕는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이 필요
 - 벤처투자의 선순환을 위해 벤처캐피털과 스타트업에 지속적인 자금공급이 필요하며,
 - 2022년 6조 7,640억 원의 벤처투자 중 대부분이 서울(55%)과 경기(17%)에 집중되어 지방의 벤처투자 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실(중소벤처기업부, 2023)
 - 따라서 모험자본(벤처캐피털/사모펀드)에 신규 자금을 제공하고, 기존 투자 자금을 용자로 대체해주는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이 필요

- 중소기업대출 부실화로 인한 은행 파산의 사례로 실리콘밸리은행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
 -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요인으로 스타트업 대상 영업 편중화를 꼽는 의견도 있으나,
 - 2022년 기준 실리콘밸리 은행의 대출 손실은 6억 3,600만 불로 유가증권투자자로 인한 손실 176억 8,500만 불*의 3.6%에 불과
 - *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의 공정가 합
 - 즉 실리콘밸리은행은 대출위험관리가 아닌 투자위험관리 실패로 파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소위 실리콘밸리은행식 금융상품의 수익성·안정성 문제는 현재 기업은행이 시범 운영 중인 IBK 벤처대출 상품의 성과를 참고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 본고는 정부의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도입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사항을 검토할 것을 제안

-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 정부가 추진 중인 스트레스 완충 제도 도입(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3.3.16.) 시 일반상업은행보다 엄격한 적용이 필요
- 합리적인 스타트업 및 기술혁신기업 신용평가를 위해 관련 노하우를 지닌 기관과 협업 연계 방안 마련
 -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엔젤투자자, 창업기획자(accelerator) 및 벤처캐피털과 네트워크 구축하여 평가 업무 협업
 - 은행 설립 초기 난이도가 높은 평가 업무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평가 업무를 위탁 고려
-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을 지방에 설립할 경우 일부 특정 지역 대상이 아닌 상호보완이 가능한 지역들을 거점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
 - 지방의 경우 특정 산업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경제가 발전하여 해당 산업의 비즈니스 사이클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 기반 산업의 상호연관성이 적은 복수의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초기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 2016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제도 도입 시 1)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 펀드 운용사 선정 시 우대, 2) P-CBO 발행 주관사 선정 시 우대(기보·신보), 증권금융 대출한도·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금융위원회, 2016)

참고자료

[국내 문헌]

강종구(2010), 「은행의 자금 조달과 운용간 만기불일치 결정요인」, 『경제분석』, 제16권 제4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위원회(2016.2.17.),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보도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23.3.3),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보도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23.3.16),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보도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23.3.30),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3.1.30.), 「2022년 벤처투자 동향 발표」, 보도자료.

한국금융연구원(2023), 「은행업 스몰라이센스: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외국 문헌]

NVCA(2023), 2023 yearbook.

[기사 인용]

강우석, 「글로벌 은행 위기에…韓, 철린저뱅크 도입 등 주춤」, 『동아일보』, (2023. 4.10).

김남준, 「‘메기’ 없는 경쟁 강화로 … 은행권 개혁 큰 줄기 잡혔다」, 『중앙일보』, (2023. 4. 7).

조윤진, 「“과점개라” 尹 지적에 … 대전 ‘한국벤처투자은행’ 설립 논의 급진전」, 『서울경제』, (2023. 2.22).

Ackerman, A. & Duehren, A., 「Fed’s Barr Calls Silicon Valley Bank a ‘textbook Case of Mismanagement」, 『Wall Street Journal』, (2023. 3.27).

Ackerman, A. & Michaels, D., 「Fed Raised Concerns About SVB's Risk Management in 2019」, 『Wall Street Journal』, (2023. 3.19).

Benoit, D., 「Silvergate Takes \$44Million Loss on Bitcoin Loan」, 『Wall Street Journal』, (2023. 3.27).

Editorial Board, 「A Climate for Failed Bank Regulation」, 『Wall Street Journal』, (2023. 3.26).

Galston, W., 「How Silicon Valley Bank Avoided Oversight」, 『Wall Street Journal』, (2023. 3.14).

Santilli, P. & Benedict, J., 「Silicon Valley Bank's Meltdown Visualized」, 『Wall Street Journal』, (2023. 3.11).

Strassel, K., 「Did ESG Help Sink SVB?」, 『Wall Street Journal』, (2023. 3.16).

[인터넷 자료]

Federal Reserve,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lbr/current/> (검색일, 2023. 3.14)

OECD.stat,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87103> (검색일, 2023. 3.22)

SVB, <https://ir.svb.com/home/default.aspxv> (검색일, 2023. 3.14)

KOSI 중소기업 포커스

발행인 : 오동윤

편집인 : 이동주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0707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s://www.kosi.re.kr>

인쇄처 : 주식회사 위드원커뮤니케이션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